

목포시, 노인·장애인 복지 혜택 확대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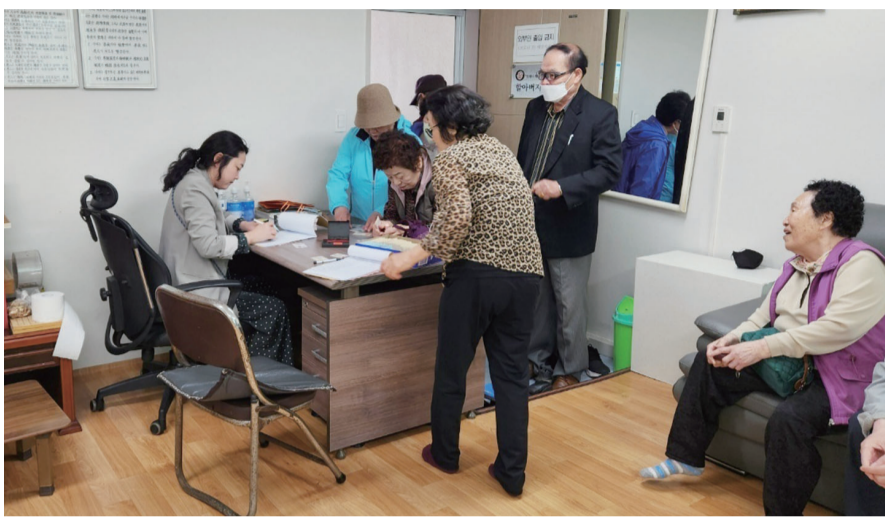
일자리 늘려 사회활동참여 지원
목욕·이미용권 연 24매→33매로
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사회적 약자에 다양한 복지 추진

목포시 복지정책이 어르신과 장애인들
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은 4만3050명, 등
록장애인은 1만3558명이다. 시 인구 21
만 3172명 중 노인은 20%, 장애인은
6.4%가 복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목포
시는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
여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맞
춤돌봄을 통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등 생활 속에 스며드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 및



목포시 복지정책이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노
인 목욕·이미용권을 수령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68억원을 투입해
2023년 대비 381명이 늘어난 4187명의
어르신들에게 40여개의 다양한 사업으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했
다.

올해는 사회적 경험과 역량이 높은 어
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사업 인원을 2023년 대비 244명 증가한
414명으로 늘렸다.

목포시의 대표 노인복지사업인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지급 매수를 연 24매에서
2024년에는 연 33매로 확대해 물가상승
에 따른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기
여하고 있다.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사업은 노인 위
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목포시 대표 노인복지사업으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2만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절대적
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가족관계
망 약화 및 사회적 단절로 고독사 등 노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
심서비스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지원, 안전지원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3개소에서 2023
년도부터 4개소로 1개소를 늘려 생활지

원사 등 전담인력 총원, 사업 예산 증액 등
을 통해 노인돌봄 대상자를 10%이상 확
대했다.

어르신 집의 응급호출기, 화재·활동감
지기 등을 응급관리요원 5명이 실시간 모
니터링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일 경우
119로 자동 신고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
스사업 지원 세대도 1350가구에서 1850
가구로 늘리는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자
칫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
에 걸친 다양한 복지정책을 빈틈없이 추
진해 초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시
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과 함
께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목포
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추진

목포시는 이번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
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한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
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지 20
년의 숙원 사업이던 호봉제를 전격 시행
함으로써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을 인정하는 결심을 맺고 미래 세대인 아
동의 돌봄을 위한 인적 환경 조성을 실천
하게 되었다.

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40
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보
호·교육·문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7
월부터 정원 25인 이상 시설 24개소에 종
사자 24명을 추가 배치해 이용 아동 1000
여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2024년 목포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모집

목포시는 제62회 '시민의 날'을 맞아
'2024년 목포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9월2일까지 추천 받는다.

목포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
해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목포시를 빛
낸 내·외국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
육 △효행 △특별활동부문 6개 부문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해 최종 수상자
1명을 선정한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의원, 동장 및 기
관·단체장이 추천하거나, 20명 이상의 연
서를 통해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
제계, 교육·문화계, 체육계, 여성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시민의 상 심사위
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위
원을 공개 모집하며, 희망자는 9월2일까

지 신청하면 된다.

수상자 선정은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제62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 지
원 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
시 자치행정과(270-3236)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 시민의 상'으로 지난 1963년 첫
시상 이후 지금까지 105명과 4개 단체 수
상자를 발굴했으며, 목포시는 역대 수상
자들의 공적을 영구 기록·보존하는 등 공
로를 공식 예우하고 있다.

한편, 제62회 목포 시민의 날은 기념식
은 오는 10월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사전 예매 시작

다음달 27일부터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2024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관람 티켓이 15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전예매를 시작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공
식 인증한 국제대회로, 25개국의 300여
명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8월27일부
터 9월1일까지 6일간 목포실내체육관에
서 열띤 경기를 펼친다.

8월27일 예선전은 무료이며, 본선경기

가 펼쳐지는 28일부터는 △일반석은 주
중 1만원, 주말 3만원 △S석은 주중 2만
원, 주말 5만원 유료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
들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로 시민
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이번 대
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목포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전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도담어린이집 원생들이 지난 12일 '콩깍지 나눔 바자회'에서 직접 판매, 발생한 수익금 26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
달라며 하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목포시 제공

도담어린이집 원아들, 바자회 수익금 26만원 전달

목포시 하당동에 위치한 도담어린이집
이 지난 1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6만원 상당을 하당동 행정복지
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원아들이 물건을 사고팔
며 경제활동을 배우는 '콩깍지 나눔 바자

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행사를 통해
원아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판
매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을 가졌다.

안순자 원장은 "바자회를 통해 아이들

이 경제활동 체험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
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이번 경험이 어려
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
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수익금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하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 복
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낙원교회, 초복맞아 어르신에 전복죽 나눔



목포낙원교회는 지난 11일 초복을 앞두고 관내 어르신 250여명을 초청해 '초복맞이
전복죽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지난 11일 목포낙원교회에서 초복을
앞두고 관내 어르신 250여명을 초청해
'초복맞이 전복죽 나눔 행사'를 개최했

다.
이번 행사는 장마와 더위로 지쳤을 어
르신들을 위해 낙원교회에서 주최해 250

인분의 전복죽과 밀반찬을 대접했다.

더불어 용당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시원한 수박과 식전공연을 지원했으며 새
마을 부녀회에서도 배식 봉사를 지원하며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목포낙원교회는 2013년부터 동 자생조
직들과 함께 매해 복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 겨울에는 관내 중장년층들
을 위한 300만원 가량의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
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최요한 담임목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성도분들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했고,
함께 해주신 용당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부녀회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
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